

社 告 ■ 종교편향 근절 호법캠페인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종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해탈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외호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 대상

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
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법보시 후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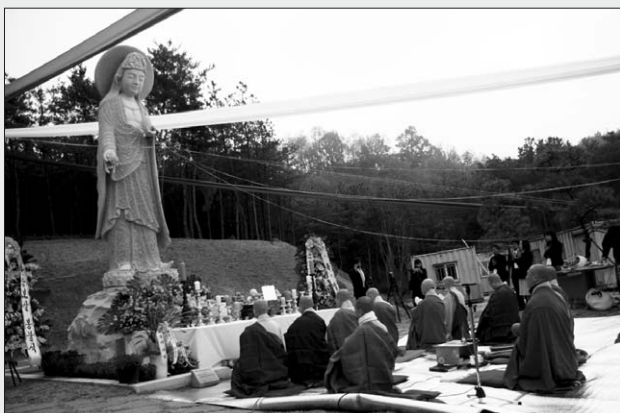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대표(02)2004-8200

“삼천대천세계에서 가장 큰 신인 수미산만한 칠보들을 가지고 널리 보시하더라도, 경전의 사구계를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설해주는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 (금강경)

승가원 자비나눔관음보살 봉불식

약 600여 명 후원으로 10개월간 조성



11월 1일 봉행된 승가원 자비나눔관음보살 봉불식.

불교장애복지의 선두 주자인 승가원을 관음보살이 자비로 품어 안았다.

11월 1일 경기도 승가원 자비나눔관음보살(노천불) 봉불식이 승가원 자비복지타운에서 봉행됐다.

승가원 산하기관 기관장과 직원 100여 명, 후원가족 200여 명 등 450여 명이 참석한 봉불식은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봉불행차가 진행됐다.

승가원 이사장 중범 스님은 “불사를 위해 동참, 시주, 설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하고 ‘관음보살 찬탄계송’을 읊었다.

약 600여 명의 후원으로 10개월간의 조성 기간을 거쳐 완성된 승가원 자비나눔관음보살 조성은 승가원 장애가족과 후원가족의 염원이 담긴 것이다.

이상연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원심회 20돌, 청각장애인 포교 교사직전

예산 인력 부족...수화포교에 관심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무 것도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우들을 꽃으로 부르는 부처님의 외로운 손짓이 있다.

20년 간 거쳐 간 회원 953명, 수화교육으로 배출된 수화봉사자 1463명. <아미타경> <법화경> <정토삼부경> 등 점역과 소설, 에세이 등 점자도서 400여 권 발간. 매주 일요일 수화법회 개최, 수화 동영상 제작 보급. 봉족대회·법불교대회 수화통역 등 20년 동안 꾸준히 청각장애우들을 위해 일을 해 온 불교계 유일 청각장애인 교육·봉사단체인 조계사 원심회(회장 김장경)가 창립 20돌을 맞았다.

원심회는 88올림픽 당시 수화에 대한 관심 고조로 불교수화교실이 생기면서 만들어졌다. IMF 이후 학생 수를 비롯한 후원금이 절반 이상 격감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됐지만 현재까지 58기 졸업생을 배출했다. 부처님 법을 전하고자 하는 20년 전법의 원력은 한결같다.

11월 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법회에서 원심회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수화로 만든 찬불가 55곡을 CD에 담아 배포했다. 한 곡을 촬영하기 위해 5~6회 재촬영은 기본이고, 매 촬영시간은 10~20시간이 소요됐다.

‘무상’ ‘아제야제바라야제’ 등 불교용어를 수화로 표현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어 김장경 회장은 늘 아쉬움을 표한다. 김 회장은 “불교용어 자체가 수화로 정립이 안된 경우가 태반이다. 다의적 해석이 가능해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 법회 때 수화를 아는 스님들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웃 종교에서는 이미 수화 포교사를 전문적으로 배양해, 각종 종교행사에서 활동중이지만 불교계 현실은 암울하지만 하다. 종단 차원에서 청각장애인 포교를 위해 체계적인 도움이 절실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절대적인 수화 전문 인력 부족이다. 법불교대회 등 큰 법회에서 수화통역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불교계는 인력부족으로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불교계를 대표해 각종행사에 나서지만 회장을 비롯해 2명의



원심회의 수화교육 장면.

직원과 불교계 수화전문자격증을 보유자가 5명 정도가 활동하는 현실이 이를 반영한다.

청각장애인과 원활한 의사소통까지는 10여 년의 수화공부를 해야 한다. 15년 이상 시험을 준비해도 까다로운 수화전문국가자격증 취득과정과 자격증을 획득하고도 생업을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이 길을 추천하기가 꺼려진다”는 것이 원심회의 고민이다.

“어디에서나 불교 인재를 인정하지만 장애인복지에 있어 지금 이 시점은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는 그는 여러 차례 “이번 20주년 기념법회이후

더 풍성한 생일잔치를 할 수 있지 걱정된다”는 말로 안타까움을 전했다.

“농이는 치매가 없습니다. 두뇌 발달을 위해서라도 배우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부를 비롯한 스님들, 학생들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년을 맞은 원심회가 희망찬 나래를 펴느냐, 이대로 날개가 꺾이느냐 하는 선택은 종단과 불자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02)720-4528

노덕현·이상연 기자

공무원불자련 봉사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 이하 공불련)는 제5차 사회복지사업의 날을 맞아 11월 15일 의정부 송산 노인복지관(이사장 일면스님)과 연계해 독거 어르신 8가구에 주거환경개선 봉사를 실시한다.

복지관 관계자는 “벽지, 장판 및 보일러 교체 등은 경제적, 육체적으로 주연의 도움 없이는 어르신 혼자 하기 힘들다”며 “올 겨울은 공불련과 함께 어르신들이 좀 더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13~14일에는 공불련 사무국 임원 22명이 가족과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를 중심으로하는 임원수련회를 갖는다. 수련회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 및 발전 방향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상연 기자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

템플스테이 개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WVP)이 도입 예정(11월 17일)됨에 따라,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현)는 한국 불자들이 미국 사찰에 머물며 여행, 템플스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여행과 휴식을 겸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인원은 12~15명으로 매주 수요일 출발, 다음 주 목요일 도착하는 6박 7일 예정이며, 비용은 170만원(항공료, 기본여행비 포함)이다.

한편 무량사 태평선원은 2008년 동안거부터 20여 명의 일반 신도의 방부를 받는다. 참가비는 220만원(3개월 입방비, 항공료 포함)이다.

현지포교에 전념할 행자와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 행자는 조계종 승니법에 의거, 출가 승려가 되기 위해 결격사유가 없는 50세 이하의 신심 충만한 남성에 한하며, 자원봉사자는 포교, 사무 및 후원 일, 사원관리, 교육(한글, 다도, 사군자, 찬불가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무량사는 하와이에 있는 5개의 한국사찰 중 가장 규모가 크며, 해외 사찰로는 유일하게 하안거와 동안거를 수행하는 태평선원을 갖추고 있다. 문의 (02)735-2230

이내은 기자

한국불미술협 기획전

경인미술관서

한국불교미술협회(회장 김창균)은 11월 12~18일 서울 경인미술관 제2전시관에서 ‘불교미술, 대중과의 소통’을 주제로 기획전을 연다. 불교 미술계 원로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김창균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교수 등 동국대 출신 불교미술의 작품들을 감상하는 기회다.

김창균 한국불교미술협회장(동국대 교수)은 “급변 기획전은 한국 전통문화의 대중성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라면서 “불교 미술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만큼을 갖고 ‘대중과의 소통’을 화두 삼아 정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02)733-4448

기연숙 기자

대불련총동문회 순례법회 시작

11월 2일 법주사를 시작으로 10년 간 순례 떠나



대불련총동문회가 10년간 53명찰을 순례하는 구법여행에 나섰다. 사진은 법주사 순례모습.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전보삼)는 11월 2일 충남 보은 법주사에서 53명찰 순례법회를 봉행하고 10년간 53명찰 순례의 길을 떠났다.

이번 순례법회는 두 달에 한차례씩 봉행되며, 2009년 1월 서울 영화사, 3월 구례 화엄사 등을 거쳐

2017년 7월 서울 조계사에서 회향할 예정이다.

1963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1회 전국수련대회 장소이자 이날 순례법회의 첫 시작인 법주사는 40년 전 20대의 나이로 서원을 세운 대불련 동문 가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연수탕화회’ 작품展

광주 북구청갤러리서

탕화장 구봉 스님의 열을 계승한 탕화전이 열린다.

연수탕화회(회장 유효중)는 11월 7~18일 광주광역시 북구청갤러리에서 ‘구봉가 작품전’을 개최한다. 구봉 스님(1910~1998)은 부처님 세계를 불화에 담아 구현하는데 일생을 바쳐, 호남지역 탕화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유효중 회장은 “연수탕화회는 구봉 스님의 문중에서 화풍과 기법을 전수받은 고령을 탕화장의 가르침을 받은 단체”라며 “구봉가의 화풍을 진작해 불교미술 탕화 속에 흐르는 아름다운 진리를 탐구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승산 행원 대종사 열반 4주기 추모다례

이것이 무엇이고 / 단지 모를 뿐 / 오직 할 뿐으로 일찍이 기억되는 큰스님

생전에는 달라이 라마(티베트), 틱낫한(베트남),마하 고사난다(캄보디아)와 함께 세계 4대 생불로 영국 캠브리지대학의 교재에 소개된 큰스님인 승산행원 대종사의 추모제가 올해로 벌써 네 번째입니다. 금번 4주기에는 세계 각국 40여개국 120곳의 선원에서 170여명의 외국인 제자 스님들과 국내 문도들이 함께 뜻을 모아 큰스님 추모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큰스님의 뜻을 널리 기리는데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 기원 드립니다.



일시 : 2008년 11월 15일 (음 10.18)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 화계사 대적광전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

서울 강북구 수유 1동 487
화계사 02)902-2663
국제선원 02)900-4326
계룡산 무상사 042)841-6084

주최 : 승산 행원 대종사 문도회 ·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 사부대중

육조사 현웅스님의 禪心으로 본 聖經 강의

[11월 27일부터 시작]

20여년간 서양인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禪 불교를 가르치다 온 현웅스님께서 聖經을 직강합니다.

성경의 뜻 바로 알면 종교적 다툼은 사라져 버린다. 虛心者 福來...곧, 마음이 가난한者 天國이 너 안에 있다.

佛經도 바로 보지 못하면 佛을 등지고, 聖經도 바로 보지 못하면 예수뜻을 등지는 미신 신앙이 됩니다.

이 마음이 禪이며, 道이며, 眞理이며, 빈 마음 곧 가난한 마음입니다.

종교 편향화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론이 분열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조말 일제 식민지하의 역사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마침내 타국의 속국국이 되어 슬픈 민족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진리는 모든종교의 근본입니다. 다만 그 설명들을 다른 말로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은 각종교의 방향을 바로 잡아 줄 수 있어야 하고, 다툼이 오면 그 다툼을 그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란 말만 들으면 그 언어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엔 믿는 이에따라 천지 현격입니다.



선원장 현웅 스님

1967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68년 사미계를 받았다. 71년 통도사 극락암에서 율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20년간 전국의 제방 선원에서 경행, 성찰, 구산, 전강 스님을 모시고 수십 안거를 성만했다. 1986년 미국 시애틀에 도원선원을 창건한 은사스님의 유지를 이어 미국 버클리 육조사를 통해 해외포교에 매진하고 있으며, 서울 육조사를 창건하여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2008년 11월 27일부터 2달간>

- ◆일시 : 매주목요일 저녁 7시 ~ 8시 30분까지
- ◆장소 : 서울 육조사 禪房
- ◆참가자 : 출 재가자와 또 종교를 가리지 않음, 성인의 뜻을 깨닫고자 하신분에게 다 열려 있음

- ◆동참비 10만원. <예약을 요함>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16701-04-017439 (예금주 : 육조사)

- ◆육조사 TEL 02)925-0408
- ◆카페 cafe.daum.net/yukjosa

*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주무시고 갈 수 있습니다.